

손진태 역사동화 연구*

유정월**

<차례>

1. 서론
2. 손진태 역사동화 자료 검토
3. 원천 자료와의 관계: 이질적 미토스의 결합
4. 새로운 담화화의 방식
 - 1) 젠더적·개성적 특성의 부여
 - 2) 호기심을 가진 가족 성원인 아동 독자
5. 인지적 텍스트로서 역사동화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손진태 역사동화에서 ‘역사’와 ‘동화’의 결합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손진태가 아동에게 역사적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해 취한 전략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역사동화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손진태가 『어린이』 잡지에 기고한 이야기들 가운데 역사동화라고 할 만한 대상 텍스트를 선정하고, 그것들이 원천 텍스트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남창은 사실적 민담과 환상적 민담, 신화를 차용하여 역사동화를 창작하였다. 그 결과 여기에는 사실적이거나 실재했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뿐 아니라, 허구적이거나 환상적인 이야기도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사동화에 원천 텍스트와 다른 고유명사, 연도, 전쟁 상황 등은 나오지 않는다. 그의 역사동화에서 새로 담화화된 부분은 등장인물의 개성이다. 인물들은 남성적/여성적인 젠더적 특징과 강인함/유약함 등 개인적 자질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 남창은 역사를 객관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한 보조적 방안으로 가족의 구성원이자 지적 호기심을 가진 아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B5A02013102)

**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등을 독자로 상징하였다. 이런 점에서 손진태 방식의 역사동화는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지시를 위해 친교적 기능을 활용하는 인지적 역사동화라고 할 수 있다.

□ 손진태, 역사동화, 『어린이』지, 담화화, 아동 독자, 인지적 기능, 친교적 기능

1. 서론

남창(南倉) 손진태(孫晉泰; 1900~?)¹⁾는 역사학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남긴 업적은 광범한 영역에 걸쳐있다. 역사학뿐 아니라 민속학, 인류학, 종교학²⁾에서 그의 업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의 학문을 둘러싼 견해는 어떤 합일점에 이른 것이 없다³⁾는 게 중론이기도 하다. 남창이 남긴 국문학 분야의 업적 역시 적지 않다.⁴⁾ 몇 가지만 거론하자면, 그는 고전시가 번역집 『조선고가요집』(동경; 도강서원, 1929)을 출간하였고, 조선의 이야기를 채록한 『조선민담집』(동경; 향토연구사, 1930),

- 1) 손진태는 부산에서 태어나 1927년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하였다. 1932년 송석하(宋錫夏), 정인섭과 조선민속학회(朝鮮民俗學會)를 창설하고 193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속학회지인 『조선민속』을 창간하였다. 1933년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 강사, 1934년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 강사, 1945년 서울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1949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을 거쳐 문리대학장에 재직 중 6·25전쟁으로 납북되었다. 그는 문헌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 답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여 민속학 연구방법의 차원을 높인 학자로 평가받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DB.
- 2) 류기선, 「1930년대 민속학 연구의 한 단면-손진태의 ‘민속학’ 연구의 성격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2, 1995, 57~80쪽; 박상규, 「손진태의 종교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5, 1~58쪽; 한국역사민속학회 편, 『남창 손진태의 역사 민속학 연구』, 민속원, 2003.
- 3) 주강현,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연구 간기」, 한국역사민속학회 편, 위의 책, 19쪽.
- 4) 이수자는 남창이 국문학 연구사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역사학의 거인”일 뿐 아니라, “국문학의 거인”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이수자, 「구비문학 연구의 성격과 의의」, 『역사민속학』 1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124~125쪽.

이를 기반으로 설화의 비교문학적 연구를 진행한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을유문화사, 1947)⁵⁾를 출판하였다.⁶⁾ 그 외 시조, 신화, 무가 관련 논문 역시 다수 발표하였다.

남창은 잡지에 여러 편의 작품을 기고하기도 했다. 개벽사의 아동 잡지 『어린이』에 손진태가 기고한 글 가운데 “역사동화”가 여러 편 있다. “역사동화”는 어린이 이야기책의 장르명으로 현재에도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 장르명을 누가 가장 먼저 사용했는지는 알기 힘들다. 다만, 『어린이』 최초의 “역사동화”는 손진태의 것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손진태가 『어린이』에 기고한 최초의 동화는 <우리의 첫 한아버지(檀君神話에서)>(1923년 5월 8일 발행)였는데, 이 역시 “역사동화”로 소개된다.⁷⁾ 이런 이유로, 동화가 독자적 갈래로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남창이 일정한 기여를 했다⁸⁾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동화의 전개 과정에 손진태가 미친 영향에 대한 논의는 그 영향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 손

-
- 5) 『조선민족설화의 연구』는 1927년 8월부터 『신민』에 15회에 걸쳐 발표한 <조선민족설화의 연구>를 모아 단행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 6) 기존논의에서는 손진태의 구비문학 연구라는 거시적 틀 내에서 남창의 선구자적 업적을 논하기도 하였다. 대표적 논의는 이수자, 앞의 논문; 황인덕, 『손진태의 구비문학 연구』, 『구비문학연구』 2권, 한국구비문학학회, 1995; 최근에는 『한국민족설화』, 『조선민담집』, 『손진태 유고집』 등 저술물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추세이다. 김기형, 『손진태 설화 연구의 특징과 의의』, 『민족문화연구』 5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권혁래, 『손진태 『조선민담집』 연구: 설화의 성격과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총론』 53, 2013; 김소희, 『『손진태 유고집』 수록 설화의 특징과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정선희, 『손진태의 『어린이』 소개 작품 목록 재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295~332쪽.
- 7) 정선희, 『손진태의 『어린이』 소개 작품 목록 재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313~314쪽. 정선희는 역사의 장에서 단군을 강제로 삭제시킨 일제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남창이 『단군신화』를 선택했을 것이라 본다.
- 8) 김기형, 『손진태 설화 연구의 특징과 의의』, 『민족문화연구』 5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652쪽; 정선희, 앞의 논문, 297쪽.

진태의 영향이나 업적을 선언하기에 앞서 그의 역사동화가 어떤 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손진태가 쓴 역사동화의 문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동화를 역사동화답게 만드는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동화는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하여 아동이 읽기에 알맞게 쓰인 이야기⁹⁾이다. 결국 역사동화는 ‘역사’라는 학문적 대상과 ‘아동’이라는 독자가 결합된 한 장르이다. 이 두 가지 결합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역사동화는 역사에 관한 어떤 정보를 아동에게 전달할 것이다. 정보가 많으면 아동들이 느끼는 텍스트 가독성이 떨어진다. 가독성을 고려하다보면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한 정보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먼저 손진태 역사동화에서 역사와 동화의 결합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와, 아동 독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가독성의 관계를 문제 삼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를 전달하는 것은 과거의 창고에서 소재를 선택하는 과정을 동반한다. 소재를 선택하는 기준에는 현재의 상황이 관여한다. 역사동화나 역사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시대는 단순히 배경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해당 시대가 내재하고 있는 시대의식은 역사가 전달되는 현재의 시대의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 본고에서는 궁극적으로 손진태가 역사적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해 취한 전략과 당대적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손진태 역사동화의 특징에 접근하고자 한다.

9) 이원수, 『아동문학입문』, 한길사, 2001, 9~10쪽.

2. 손진태 역사동화 자료 검토

어떤 작품들을 손진태의 역사동화로 보아야 할까? 손진태가 『어린이』에 발표한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잡지에 수록된 손진태의 동화

번호	제목	권호	연월	장르(양식)
1	우리의 첫 한아버지(檀君神話에서)	1권 5호	1923.05.	역사동화
2	고주몽 이야기	1권 7호	1923.07.	역사동화
3	고주몽 이야기	1권 9호	1923.09.	역사동화
4	류리(類利) 이야기	1권 10호	1923.10.	역사동화
5	장사의 이야기 『곰생이』	2권 8호	1924.08.	동화
6	명장 강감찬	3권 5호	1925.05.	역사동화
7	신승겸 장군	4권 10호	1926.10.	역사동화
8	명장 강감찬	10권 10호	1932.10.	역사동화

남창은 『어린이』에 여러 편의 역사동화를 기고하였다. 남창이 『어린이』에 게재한 최초의 역사동화는 1권 4호 『우리의 첫한아버지』이다.¹⁰⁾ <고주몽 이야기>는 1923년 9월 발표된 것만 실물로 확인 가능하다. 이는 주몽이 어머니에게 하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고주몽 스토리의 중간 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하는 셈이다. 정선희는 또 다른 개벽사의 잡지 『부인』에서 『어린이』 1권 7호의 광고를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歷史童話 고주몽 이야기”가 광고되고 있어서, 이를 통해 보면 『어린이』 1권 7호에도 고주몽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고주몽 이야기>는 『어린

10) 이에 대해서는 정선희, 『손진태의 『어린이』 소재 작품 목록 재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312~313쪽.

11) 정선희(2017), 앞의 논문, 312쪽.

이』에 총 두 번(1923년 7월과 9월)에 걸쳐 수록된 연작이다.

1권 4호부터 1권 7호까지 『어린이』 실물 자료가 발굴되지 않았으며, 그 외 누락된 『어린이』지가 다수 있어 남창이 쓴 또 다른 역사동화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남창이 『어린이』에 기고한 최초 역사동화가 무엇인가는 비교적 정확하게 말할 수 있지만 남창이 기고한 전체 역사동화의 편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미지수이다. 1번과 2번의 작품 역시 남창의 역사동화임에는 명백하지만 실물 텍스트를 다룰 수 없어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남창이 기고한 역사동화의 전체 편수가 확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논문에서 다루는 텍스트의 범위는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때 더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명창 강감찬>에 대한 것이다. 3권 5호에 수록된 <명장 강감찬>과 10권 10호에 수록된 <명장 강감찬>을 두 편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한 편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두 텍스트에는 큰 차이가 없다. 10권 10호의 <명장 강감찬>은 이전의 것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결혼담이 빠지고, 삽화 두 장이 첨부되었다.¹²⁾ 이러한 변화는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담화적 차원에서 보자면 결혼담의 유무는 전체 이야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두 편을 개별적 텍스트로 보고자 한다.

손진태가 발표한 『어린이』 잡지 이야기에는 대부분 “역사동화”라는 표제어가 있고 한 편에만 “동화”라는 표제어가 있다. 『장사의 이익기 『곰생이』』는 유일하게 “동화”로 발표되었다. 역사동화로 언급된 것들은 정말 동화회는 다른 역사동화일까?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동화’나 ‘동화’라는 표제어들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일까? 결론부터 언급하면 ‘역사

12) 그 외 띄어쓰기나 조사의 사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선희(2017), 위의 논문, 309쪽.

동화'와 '동화'라는 표제어의 선택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뚜렷한 장르 구분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장사의 이야기 『곰생이』> 시작부는 “역사동화”라는 표제어를 가진 다른 이야기들과 다르다. “지금부터 얼마나되었는지는 몰으셨습니다마는 찍은 오래된 옛날의일이라고 합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부이다. “역사동화”라는 표제어를 가진 <고주몽 이야기>나 <유리 이야기>, <신승겸 장군>, <명장 강감찬>이 지루할 정도로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명시하면서 시작하는 것과는 차별적이다. 또 <장사의 이야기 『곰생이』>에서는 허구적 인물이 등장한다. 이 인물이 허구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 이야기는 손진태가 『조선민담집』 채록본에 기반하여 새로 만든 이야기이다. 손진태는 1923년 8월 13일 김호영의 이야기를 채록, <네 사람의 장사>라는 제목으로 『조선민담집』에 수록하였다. 여기에는 네 명의 장사가 등장하는데 그 중 첫 번째 장사 이야기에 가감을 한 작품이 <장사의 이야기 『곰생이』>이다. 허구적 인물 ‘곰생이’가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이 동화는 다른 이야기와 다르다. 이렇게 보면, 손진태에게 ‘역사동화’는 역사적 시기의 어느 때 실존한 것으로 생각되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 손진태는 『조선민담집』에 ‘역사적 시기 어느 때 실존한 것으로 생각되던 인물’에 관한 여러 편의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큰 지렁이의 아들 최충>, <강감찬 설화(1~3)>, <김수로 왕의 뿌리>, <김덕령 전설>, <박문수 일화>, <이순신 일화>가 그것이다. 이들을 역사동화로 볼 수 있을까? 앞서 잠시 언급했듯 『조선민담집』은 채록본으로, 여러 화자들이 구연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이 ‘기록’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조선민담집』의 이야기들은 역사동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당시의 ‘기록’은 녹음기에 의존한 것이 아니다. 구연

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애초의 구연과 다른 채록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조선민담집』은 화자의 언어와 채록자의 언어, 구연자의 기억과 기록자의 기억이 혼합된 산물이다. 이 혼합물을 구분해서 손진태의 고유성과 화자의 집단성을 분리해내는 일은 여러 차원에서 유의미하기는 하나 쉽지 않다. 손진태가 이야기를 기술할 때 어떤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즉 그의 서술적 혹은 담화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실물이 확인 가능한 역사동화 3,4,6,7,8번을 대상 텍스트로 다루고자 한다.

3. 원천 자료와의 관계: 이질적 미토스의 결합

먼저 손진태 역사동화의 특징은 그가 선택한 역사동화의 원천 자료와 그가 쓴 역사동화를 비교하면서 드러날 수 있다. 남창이 쓴 역사동화의 원천 자료가 될 만한 텍스트로는 구술 자료와 기술 자료가 있다. 그 세부적 종류는 시대나 장르에 따라 다양하며 각편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진다. 손진태가 역사동화를 쓸 때 참고한 자료들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남창의 역사동화에 나타나는 몇 가지 핵심적 에피소드를 구분하고 그것들의 전승 양상을 염두에 두면서 남창이 만들어 낸 특정한 변이에 대해 논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구체적 영향 관계를 언급하기보다는 미토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과 남창의 역사동화에서 차별적 혹은 독자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남창이 역사동화를 위해 선택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이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 자료를 과거의 역사나 설화에서 가져올

때에는 선택과 배제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남창이 역사동화의 주인공으로 선택한 인물은 주몽, 유리, 강감찬, 신승겸으로, 이들은 남성-영웅-무장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들은 또한 고조선(단군)-고구려(주몽, 유리)-고려(신승겸, 강감찬)를 배경으로 활약한 인물이다.¹³⁾

<고주몽 이야기>는 전편과 후편이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데, 전편은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¹⁴⁾ 후편은 주몽이 부여를 떠나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고주몽 이야기>의 원천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몽과 비류왕의 만남과 갈등이 해당 자료에 기술되어 있는가 여부를 살필 수 있다. 둘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텍스트와 드러나지 않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이다. <고주몽 이야기>에서는 주몽과 비류왕(블류국왕)의 만남-갈등-내기가 나타난다. 이 둘의 만남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하로는 고주몽이 ब्ल류 강가에 나아 갔다가 물 위에서 나물입사귀가 몇몇 물결을 짜라 뚱뚱 썩내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강우에는 사람 사는 곳이 있나보다.’”

<고주몽 이야기>에서 주몽은 강물에 떠내려오는 채소의 잎사귀를 보

13) 손진태 역사동화에는 조선시대의 사건과 인물이 누락되어 있다. 손진태에게 국가가 힘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으며, 이런 점에서 조선은 그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는 나라였다. 그는 유교가 조선에 미친 영향을 탐색하면서 유교가 무력을 극도로 배격하는 ‘반무력사상’ 혹은 ‘무력반대사상’이라고 하였다. 이런 유교로 인해 조선이 하등의 무기도 없는, 인류 유사 이래 기괴망측한 국가가 되었다고 보았다. (<유교와 조선>, 『우리민족의 걸어온 길』, 범우, 306, 308쪽 재인용.)

14) 정선희, 『손진태 『어린이』 소재 작품 목록 재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7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331~312쪽. 정선희에 따르면 개벽사가 발간한 『부인』 2권 8호(1923년 8월호)에서 『어린이』 1권 7호의 광고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역사동화 고주몽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어린이』 1권 7호는 현재 발굴되지 않아 실제로 확인이 어렵다.

고 강위에 사람 사는 곳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가서 불류국왕을 만난다. 그리고 그와 활쏘기 내기를 한다.

『삼국유사』에서는 비류왕과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삼국유사』에서는 부여에서 도망한 주몽이 졸본주에 이르러 도움을 열었는데, 미처 궁전을 지을 겨를이 없어 비류수 위에 집을 얹고 살았다고 한다. 건국할 때 주몽의 나이를 보면, <고주몽 이야기>에서는 스물두 살로 나오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열두 살로 밝히고 있어 차이가 난다.

『삼국사기』와 『동명왕편』에서는 비류왕과의 만남과 갈등이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고 있다. 동명왕과 비류왕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동명왕편』에서는 비류왕 송양이 사냥하다가 주몽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어 <고주몽 이야기>와 차이가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왕이 비류수 가운데 채소 잎[菜葉]이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 그 상류에 사람이 살고 있는 줄을 알았다.(王見沸流水中有菜葉逐流下 知有人在上流者)¹⁵⁾”라고 하고 있어 <고주몽 이야기>와 세부적 사실이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눈 내용, 내기로 활쏘기를 한 점도 일치하며 주몽이 건국할 때 나이를 스물두 살이라고 한 점도 동일하다. <고주몽 이야기>는 『동명왕편』보다는 『삼국사기』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창이 참고한 미토스는 『삼국사기』와 같은 기술 전통뿐 아니라 구술 전통에서도 발견된다. <명장 강감찬>은 마마담, 결혼담, 전쟁담의 에피소드가 결합되어 있어 더 다양한 원천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에피소드 중 일부는 1930년에 출간한 『조선민담집』에 기록되어 있다. 손진태는 『조선민담집』을 출간하기에 앞서 1923년 7월에 <강감찬 설화(1)>(충북 괴산읍 안주상 구연)을 채록했고, 한 달 뒤 8월에 <강감찬 설화(2)>를 채록했다(경북 달성군 월배면 상인동 윤희병 구연). 1925년 『어린이』에 <명

15) 『삼국사기』 13권(이강래 역, 『삼국사기』 1, 한길사, 308쪽).

장 강감찬>을 두고할 때 남창은 1923년 두 차례 채록을 통해 알고 있던 강감찬 설화를 참조했을 것이다.

『조선민담집』의 <강감찬 설화(1)>에서는 ‘강감찬의 어머니’, ‘호랑이를 물리친 이야기’라는 소제목 하에 강감찬의 탄생담과 호랑이 퇴치담을 기술하고 있다. <강감찬 설화(2)>에는 ‘강감찬의 어머니’, ‘괴상한 여우의 퇴치’, ‘천연두신 호출’, ‘호랑이 퇴치’, ‘개구리 우는 소리 금한다.’, ‘염라왕 호출’이라는 소제목이 등장한다. 구술된 강감찬 설화는 주로 탄생담과 퇴치담(호랑이, 여우)에 속하는 각편이다. 이는 현대 구술 채록본에도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강감찬 설화이다.¹⁶⁾

퇴치담은 호랑이와 여우 등 이물을 퇴치하는 이야기로 강감찬이 호랑이를 물고 가는 신부를 구하는 이야기(<강감찬 설화(1)>). 손진태 자신의 기억으로 되어 있음), 노승으로 변신한 호랑이를 퇴치한 이야기(<강감찬 설화(2)>), 신랑으로 둔갑한 여우를 퇴치한 이야기(<강감찬 설화(2)>)이다. 그 외 개구리 우는 소리를 금한 이야기(‘금와훤(金蛙喧)설화’)나 천연두신을 호출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들 역시 『조선민담집』뿐 아니라 현대의 구술 전승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조선민담집』의 여러 구술 전승 가운데 역사동화 <명장 강감찬>에서 선택한 것은 천연두신 호출 이야기, 마마담이 유일하다.¹⁷⁾ 세 번이나 천연두신을 불러서 꿈보가 되는 과정은

16) 『조선민담집』의 <강감찬 설화(1)>에 나오는 탄생담은 강감찬의 아버지가 산길을 헤매다가 한 여자와 동침을 했는데, 그 여인이 사실은 여우였다는 내용이다. 강감찬 설화(2)는 강감찬의 아버지가 주막 여자와 동침을 하여 아들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핵심은 강감찬의 평범하지 않은 탄생에 관한 이야기이다.

17) 『조선민담집』의 이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추한 얼굴인데 세 번이나 천연두를 앓았다. 그는 더욱 보기 싫은 얼굴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천연두의 여신인 호구마마를 불러들였다. 마마는 그가 두려워 처음에는 가볍게 그의 얼굴을 문질렀다. 그러나 그는 화를 내면서 ‘더욱 새게 문질러 보기 싫은 얼굴이 되지 않으면 용서 없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마마는 끝내 세 번이나 얼굴을 세 개 문질러 꿈보 투성이로

<강감찬 설화(2)>와 <명장 강감찬>이 거의 유사하다. 퇴치담은 가장 흔한 강감찬 미토스 가운데 하나지만 <명장 강감찬>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만 언급할 뿐이다.¹⁸⁾

전쟁담은 『고려사』를 비롯, 근대의 강감찬전류에서도 공통적으로 전승된다. <명장 강감찬>에서는 강감찬이 거란병을 맞아 일종의 계책을 내서 싸운 부분이 자세히 나온다. 소가죽을 꿰어 강물을 막게 하고, 그것을 터뜨려서 적들을 혼란시켰다는 것인데, 그러한 계책을 명확하게 밝히는 대표적 역사서가 『고려사 열전』이다.¹⁹⁾ 여기에는 거란 장수 소손녕이 거란의 왕에게 얼굴 가죽이 벗겨졌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역시 <명장 강감찬>과 동일하다.

<명장 강감찬>의 결혼담에는 새로운 지점이 있다. 곰보로 소문난 강감찬에게 아무도 그에게 딸을 주려고 하지 않자, 강감찬이 개성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대가집 딸임을 알아보고, 그 댁에 가서 고향 친척이라고 속인 후 처녀에게 입을 맞추어 결혼한다는 이야기이다. 강감찬의 결혼담은 남창이 채록한 것도 아니고, 역사 기록에서 전승된 것도 아니다. 이 결혼담은 속임수로 처녀를 얻는 이야기로, 일종의 사기담에 속한다. 미토스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강감찬 미토스에 자주 결합되는 이야기는 아니다.²⁰⁾

만들었다고 한다.”

18) “이밖에도 강감찬의 범잡든 이악이 개고리 못올게 하든 이악이가튼 것도 잊습시다마는 너머 길어짐으로 그것은 고만”한다. “이밖에도 강감찬의 범잡든 이악이 개고리 못올게 하든 이악이가튼 것도 잊습시다마는 너머 길어짐으로 그것은 고만”한다.

19) 고려사 흥화진(興化鎭 :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군 위원·피현군 백마 동쪽)에 이르러 기병 1만 2천 명을 뽑아 산골짜기에 배복시킨 후, 동아줄로 소가죽을 꿰어 성 동쪽의 큰 냇물을 막고 기다렸다. 적이 다가오자 막아 놓았던 물줄기를 터뜨리고 북병을 돌격시켜 크게 패배시켰다. <강감찬>, 『고려사 열전』, DB.

20) 이 이야기는 첫 번째 <명장 강감찬>(3권 5호, 1925년 5월)에 수록되어 있고 두 번째 <명장 강감찬>(10권 10호, 1932년 10월)에서는 누락되었다.

<명장 강감찬>은 역사와 설화 모두에서 미토스를 가져온다. 사실적 에피소드와 환상적 에피소드가 강감찬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역사동화에서도 역사적 미토스와 설화적 미토스가 함께 사용되곤 한다. 역사적 미토스의 경우, 정치사와 전쟁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삼국사기』와 『고려사』 같은 역사서를 기반으로 한다. 남창은 설화적 미토스 가운데 사실적 민담뿐 아니라 환상적 민담과 신화도 차용한다. 그 결과 남창의 역사동화는 사실적이거나 실재했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뿐 아니라, 허구적이거나 환상적인 이야기를 병합한 텍스트가 된다.

4. 새로운 담화화의 방식

1) 젠더적·개성적 특성의 부여

남창의 역사동화는 유사한 시퀀스를 서술할 때 원천 자료들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담화화를 한다. <고주몽 이야기>는 주몽이 고구려를 떠나면서 시작한다. 여기에서는 유화와 주몽의 이별이 구체화된다.

주몽의 어머니가 이를 은밀히 알아차리고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하니 너의 재능과 지략을 가지고 어딘들 못 가겠느냐? 머뭇거리다가 치욕을 받느니보다 차라리 멀리 가서 큰일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어머니는 뺨에 구슬갓흔 눈물을 쭉쭉 찌러터리며 “주몽아 너의 재조와 용맹으로 어대를 가면 무엇을 못하겠네. 너는 반드시 다음에 남금이 될 것 같다. 내 생각은 하지 말고 어서가서라” 하면서도 주몽의 소매자락을 놓치 못 하였습니다. 고주몽이는 겨우 어머니를 위로하여 두고 말을 다녀서 <고주몽 이야기>

<고주몽 이야기>에서 유화는 눈물을 떨구며, 주몽의 소맷자락을 놓지 못하고, 주몽은 이런 유화를 위로한다. 『삼국사기』에서는 이별을 맞는 모자의 구체적 행위가 생략되기 때문에 유화는 이별의 슬픔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묘사된다. 반면 <고주몽 이야기>에서 유화는 슬퍼하는 감정과 자식에 대한 미련을 가진 부인으로 그려진다. 『삼국사기』와 달리 주체들의 심리 표현을 통해 더 구상화된 이별 장면을 창조한 것이다. <고주몽 이야기>처럼 <유리 이야기>에서도 이별의 슬픔이 강조된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이별이 나오는데, 주몽과 예씨 부인의 이별, 예씨 부인과 유리의 이별이 그것이다. 『삼국사기』와 비교해보면, <유리 이야기>가 대화를 통해 장면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진태 역사동화에서는 사서(史書)의 말하기를 보여주기로 전환하고, 요약적·설명적 언술을 인물 간 대화로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을 자주 볼 수 있다.

처음에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 여인에게 장가들어 임신이 되었는데, 주몽이 떠나간 뒤에야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가 곧 유리였다. 『삼국사기』

고주몽이 장차 도망코저해야 자기 새앗시를 보러 간 날 밤의 일이 올시다. 새앗시는 사랑하는 새서방님과 서로 써나는 것도 슬펏스나 쪼 한가지 슬픈 일이 잇섯습니다. 새앗시는자 그의 배를 가라치면서 “여기 당신의 아희가 잇습니다. 이아희가 나면은 엇더케 하랍니까?”하고 물엿습니다. 고주몽은 서슴지 안코 대답하엿습니다. <고주몽 이야기>

『삼국사기』에서 요약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주몽과 예씨의 관계가 <유리 이야기>에서는 하나의 장면으로 구성된다. 주몽이 도망하기 전 ‘새앗시’를 만나는 장면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갓 결혼한 부인이 가지는 이별의 슬픔이 표현되고, 임신 사실이 직접 화법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슬픔은

유화뿐 아니라 예씨의 주된 정조이기도 하다. <유리 이야기>에서 유리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묻자, 예씨는 “슬픈 어골”로 답한다거나, “슬픔을 다시금 자아내는” 대답을 한다. 원천 자료에 없던 대화가 삽입될 경우, 대부분 대화자의 감정이 묘사되는데, 그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감정이 슬픔이다.

이렇게 주몽과 예씨 부인, 유리와 예씨 부인의 이별과 슬픔의 정조가 강조되면서 이야기의 초점은 주몽과 유리보다는 예씨 부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관계에 놓인다. 유리가 보물을 찾기 전까지, <유리 이야기>에서는 주몽과 예씨의 이별, 유리와 예씨의 대화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부부와 모자의 이별과 그로인한 정조가 강조되는 것이다. 막상 주몽과 유리의 만남은 대화와 묘사 없이 요약적으로 서술된다. 그 결과 주몽과 유리로 이어지는 부자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다른 가족 관계가 부각된다.

<고주몽 이야기>에서 주몽에게도 개별적 특징이 부여된다. 주몽이 하늘에 기원하여 어별교(魚鼈橋)를 만드는 장면을 보자. 이것은 일종의 미토스지만, <고주몽 이야기>에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구상화된다.

“나는 천제의 아들이오 하백의 외손자이다. 오늘 도망하는 길인데 뒤쫓는 이들이 거의 닥쳐오니 어찌하면 좋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물고리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져버려 쫓아오던 기병들은 건너지 못하였다. 『삼국사기』

만일 이 물을 건너지 못하면 고주몽의 목숨은 엇지 될 줄 모르게 되었습니 다. 고주몽은 여긔서 소리를 쳐 물귀신을 호령하였습니다. “지금 뒤를 쫓차오는 도적이 급하니 속히 이물에 다리를 노아라. 쉼작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하면서 활살을 쏘니 살은 횃바람을 치며 물귀신의 바로 귀밧을 지나

있습니다. 압록강의 물귀신은 고만 혼이나서 전신에 소름이 끼칩니다. ‘아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는 큰일이나겠대’하고 강물 속에 사는 고
기란 고기를 모다 불냅니다. <고주몽 이야기>

『삼국사기』에서 주몽이 위기 상황에 처해 ‘천제의 손자, 하백의 외손’이
라고 하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준다. 어별교는 주몽이 하늘의
자손이자 물의 자손임을, 신성한 존재임을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고주
몽 이야기>에서는 주몽이 천제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바로 물귀신에게 호
령하고,²¹⁾ 화살을 쏘아 물귀신을 위협하기도 한다. 주몽은 천부와 지모를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용기와 대담함을 가진 인물로 부각된다. <고주몽
이야기>에서는 주몽의 신성정보다는 호전성이 전경화 되는 것이다. 이런
남성적 특징은 강감찬에 대한 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명장 강감찬>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 기록과 구술 전승에서 가
져온 몇 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다. 『고려사』의 경우 전쟁 중심으로
세부적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어서 연대기적이며, 시간의 흐름이라는 점에
서 통일되어 있다. 채록된 설화는 각편이 단편적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명장 강감찬> 역시 시간 순서에 따라 일대기를 서술하거
나, 에피소드 나열식으로 구성될 수도 있었지만 손진태는 이야기에 유기
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질적이며 단편적 에피소드를 유기적 관계로
엮어내고자 한 것이다.

유기성의 핵심에는 강감찬의 ‘남다름’에 대한 소신이 있다. 그는 마마신
을 불러 세 번이나 마마를 하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남과 같은 것을 싫어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강감찬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무슨 악

21) 주몽은 어머니나 부인과 이별할 때 이들을 위로하거나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
한 단호함은 그의 공격성과 호전성에 더하여 남자다움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의 얼굴이나 무서운 탈”처럼 되었다. 이런 신체적 특성은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것으로 주제화되지 않는다. “우리가트면 얼굴도 잘나고 몸집도 현출하게 큰 것을 좋아하겠습니다마는 그는 어렸숄 대부터 무엇에든지 보통으로 남과 가튼 것을 실혀 하엿습니다.”라는 서술에서 보듯, ‘곰보’는 일반인과 다른 강감찬의 내적 특성의 결과물이다. 이 특성은 마마담, 결혼담, 전쟁담을 연결하면서 하나의 유기적 이야기를 창조한다. 마마담 다음에는 마마로 인해 결혼이 어려워진 상황이 서술된다.

나희 차차 만하저서 강감찬 장군은 장가를 가게 되엿습니다. 그러나 강감찬의 곰보씩지요 더러운 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소문으로서도 알고 잇슴으로 아모도 쌀을 줄 사람이 업서습니다.

마마담은 결혼담의 원인이 되고, 마마의 원인은 ‘남다름’에 있다. 강감찬은 다른 사람과 다르고자 하는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마마신을 불러 얼굴이 추남이 되었고, 추남이 되어 결혼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인이 될 처녀를 속여 결혼을 한다. 명시되지는 않지만 이것은 귀주대첩에서 장군의 역할과 이미지로 연결된다.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소가죽을 동아줄로 꿰어 강을 막아 승리한 것도 남다른 책략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승전 후 귀환은 『고려사 열전』과 다른 방식으로 서술된다.

곰보 강장군의 얼굴에는 엷은터마다 위엄과 귀염이 소사올랐습니다. 쌀주기를 시려하든 대감집에서도 여러 가지로 넷날 일을 생각하고 깃버하엿을 것입니다.

귀환하는 장면에서, 강감찬 얼굴에 엷은 흔적이 다시 환기된다. 강감찬 신체적 특징의 구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또한 이를

보는 장인의 심정을 추정하면서 결혼담 역시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 에피소드마다 사용되는 ‘우리 곰보장군’이라는 명칭은 이질적 에피소드들의 결속성을 강화한다. 곰보는 ‘남다름’의 산물이자 그것의 표상이다. <명장 강감찬>에서 이러한 개인적 특질은 사실과 환상, 역사와 민담의 이질적 요소들로 구성된 에피소드들의 일관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방식은 강감찬에 대한 이전의 서사와는 조금 다르다. 강감찬에 대한 일대기 형식의 전기로 홍양호의 <姜邯贊傳>(한문본, 1794), 우기선의 <姜邯贊傳>(국한문본, 1908), 박건희의 <高麗姜侍中傳>(국문본, 1913), 장도빈의 <姜邯贊傳>(국한문본, 1926)이 있다.²²⁾ 이러한 서사에서 강감찬은 상무정신을 고취하거나, 일체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출하거나, 외침에 대한 민족적 항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집단적 가치를 표상하는 인물이었다. 남창의 <명장 강감찬>은 이와는 달리 개인의 신체적 특징과 성격적 특성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남다름의 또다른 삽화처럼 전쟁을 언급함으로써 강감찬의 공적 상징에 개인적 특성을 더한다.

고구몽과 강감찬에게 부여된 남다름은 나라를 건국하거나 전쟁을 수행하는 자질, 남성다움을 내포한다. 유화나 예씨 부인은 모두 감성적이며 순종적이라는 점에서 여성적인 인물들이다. 손진태 역사동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남성적/여성적인 젠더적 특징과 강인함/유약함 등 개인적 자질을 가진 인물이자 가족의 일원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렇다면 남창이 만들어낸 이러한 개성은 아동 독자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자.

22) 이들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는곽정식, 『강감찬일생의 문학적 연변 양상과 그 의미』, 『어문학』 113, 한국어문학회, 2011, 101~135쪽.

2) 호기심을 가진 가족 성원인 아동 독자

이 역사동화에는 아동 독자를 염두에 둔 메타적 발언들이 있다. <명장 강감찬>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린이 독자를 명명한다. 이 동화는 “여러분 깃버하십시오 日本 조도던 大學에서 歷史를연구하시는 색동회 孫先生 이 유명한 姜장군 이악이를 해주시겠습니까.(박수)”로 시작한다. 끝에는 역시 “(拍手大囑采) 이번에는 여흥연극이 있는데 색동회의 馬선생님이 지으신 재미있는 연극입니다 (박수 대환영)”이라는 작은 글씨가 나온다. 이런 상황은 이 역사동화를 수록하고 있는 『어린이』 특집호뿐 아니라 다른 권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손진태 자신보다는 편집자의 언술로 보인다. 손진태가 구연상황을 동화 안에 삽입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의 의도였건 간에 역사동화 안에서 어린이는 육화하여 기입된 것처럼 보인다.

마치 눈앞에 있는 사람처럼 독자를 명명하는 것은 구술적 상황과 유사하다. 구술적 상황이 기술적 텍스트 안에 나타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추론 가능하다. 독자가 과거 전통적 이야기 연행 방식을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읽을거리가 흔하지 않고 문맹률이 높았던 때이니 독자들이 모여 잡지를 강독하던 상황을 모방하는 것일 수도 있다.²³⁾

그 의도가 과거의 구술 상황 재현에 있건 현재의 독서 상황 재현에 있건 간에, 기술 텍스트에 삽입된 구술 연행 상황은 전통적인 그것과 다르다. 성인 화자와 아동 청자의 엄격한 역할 구분을 전제하며, 작가(화자)가 독자(청자)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술적 맥락을 복사하고자 하는 시도는, 화자와 청중 사이에 교환이 발생하던 생생한 상황²⁴⁾에 가깝게 기술하고 싶은 욕망

23) 독자들이 『어린이』를 ‘낭독’했던 정황에 대해서는 조은숙, 『한국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52쪽.

을 표현한다. 동화에 나타나는 구술적 맥락은 이야기의 “메시지”와 함께, 이야기의 수용 과정이 중요하며 “이야기가 말하는 것”과 함께 “의사소통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야콥슨의 용어를 참조하자면²⁵⁾, 이때 언어의 “친교적phatic”기능²⁶⁾이 주요하게 대두하는 것이다.

이 아동 독자는 구술 연행의 청자와 같은 인격체로 구현될 뿐 아니라, 어떤 입장, 태도, 상황을 가진 존재로 기대된다.²⁷⁾ 이러한 독자를 내포 독자라 할 수 있는데, 내포 독자와 실제 독자가 얼마나 유사한지, 그러한 내포 독자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다. 그러나 독자의 자리가 명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독자는 내포 독자의 자리에 자신을 동일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남창의 역사동화에서 독자는 어떤 아동으로 구현되고 있을까.

그는 마음이 이상해서 우리가트면 얼굴도 잘나고 몸집도 현출하게 큰 것을 조아하겠습니까다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무엇에든지 보통으로 남과 가튼

24) 피터 브룩스, 『정신분석과 이야기행위』, 문학과지성사, 2017, 121쪽.

25) Roman Jakobson, *Language in Literature*, Havard University, 1987, pp.66~71.

맥락(지시적/인지적 기능)

메시지(시적 기능)

발신자(감정적/표현적 기능) ----- 수신자(능동적/사역적 기능)

접촉(친교적 기능)

약호(메타언어적 기능)

26) 이런 언어의 친교적 기능은 1920년대 들어 나타난 아동문학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에 대해 엄희경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동화적 글쓰기의 대표적 표지인 ‘앗/엿습니 다’는 ‘존중받아야 할 아동’이라는 사회적 관념, 이야기의 새로운 구술 양식인 구연동 화와 동화가 친연 관계를 맺고 있음을 표시하는 근대적 서술 장치이다.”(엄희경, 『소 파 방정환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58쪽.)

27) 이는 내포 독자(Implied reader)의 개념으로, 독자반응비평의 주요 용어 중 하나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내포독자에게 말 건네기이다. 구술 상황을 모방하면서 구현된 독자는 일종의 내포독자라 할 수 있다.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나 형님으로부터 “이에 공부 좀 하여라 밤낮 놀기만 하면 잊지겠니”하는 꾸중을 한번도 듣지 안이 하였습니다. 노는 대든지 공부 하는 대든지 자기의 역할은 모다 자기 손으로 다 하였으므로 부모의 나무람을 들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나 형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수 있으며, 부모의 자식, 형의 아우로 가족 관계 내에 위치한다.

앞서 <고주몽 이야기>와 <유리 이야기>에서 부부와 모자의 관계가 확대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남창은 <고주몽 이야기>와 <유리 이야기>에서 주몽 역시 어머니의 아들이나 예씨의 남편으로 형상화한다. 유리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들이자 어머니의 아들로 그려낸다. 여기에서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손진태가 이동 독자를 가족의 일원으로 상징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독자와 주인공의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창작 과정에서 관련 장면을 담화화할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담화화는 독서 과정에서는 독자가 주인공의 처지에 쉽게 공명하도록 한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듣지 않을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어머니와의 이별을 슬픈 일로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강감찬의 남다른이나 유리, 예씨, 유화가 가지는 여성적 슬픔의 정조는 인물들에게 개인적·감성적 자질을 부여한다. 특정 자질을 가진 인물의 창조 역시 가족의 성원으로 상징된 이동과 소통하고자 하면서 창출되었을 것이다. 역사적 인물에게 부여된 특성적 자질로 인해 독자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역사적 인물과 거리감을 줄일 수 있으며, 친밀감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에 몰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역

사적 인물을 가족 상황에 위치시키거나 그들에게 특성적 자질을 부여하도록 견인한 것은 아동 독자들을 염두에 둔 친교적 소통의 기능이다.

남창의 역사동화 독자는 특성을 가진 개인이나 가족의 구성으로 규정될 뿐 아니라 과거에 대해 지적 호기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하고자 함은 고주몽의 아달 류리의 이약이올시다. 주몽의 이약이와가티 우리들의 먼-나먼 한아바지 되는 고구려 사람들이 재미있게 서로 말하든 바이올시다.

곰보장군 강감찬이라면 우리 조선 사람으로서는 누구든지 다 아는 이올시다.

그새에 우리 조선은 지금과가티 나라 일흠이 조선이 안이고, 고려(高麗)라고 하였습니다(지금도 서양 사람들이나, 만족 사람들은 우리를 고려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조선은 옛날에 세나라로 난호아 잇섯습니다. 고구려란 나라와, 신라란 나라와, 백제란나라로. 그러튼 것을 지금부터 일천이백오십년 전에 신라가 세나라를 모다 차지하야 우리조선은 신라라는 한나라로 되였습니다.

이들은 강감찬이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독자, 조선과 고려의 상관관계를 알고자 하는 독자, 고려뿐 아니라 이전의 삼국시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이미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독자이다. 역사동화가 일정한 방식으로 읽히도록 미리 정해주는 일종의 '반응유도 구조의 땅'에 걸려든 이 독자는 조선 사람으로, 조선의 과거를 알기 원하는 사람이며, 일부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동이다.

개인으로서의 개성을 가지고, 가족 관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는 독자를 상정하는 것은 일견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당시 어린이의 대표적 표상은 이와는 조금 달랐다. 가령 방정환의 어린이 표상을 보자. 방정환은 1920년대 손진태와 여러 접전을 가진 인물이었다. 손진태는 방정환에게서 들은 설화를 『조선민담집』에 수록했다.²⁸⁾ 방정환은 손진태가 동화를 게재한 『어린이』의 편집자였고, 이들은 색동회 창단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²⁹⁾ 이를 고려하면, 손진태가 가장 영향을 받기 쉬운 어린이 전문가는 방정환이었는데, 방정환에게 ‘어린이’는 동심을 가진 천사로 등장한다.³⁰⁾ 이러한 경향은 1920년대 당시 어린이의 내적 표상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했다.³¹⁾ 손진태의 아동 독자는 동심보다는 호기심을 가지며, 천사라기보다는 가족의 성원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방정환이나 시대의 표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손진태는 지적인 독자들을 상정하면서 아동들에게 역사에 관한 세부적 지식들을 전승한다. 고구려, 고려, 조선, 비류국, 키타이(거란) 등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나라들, 주몽, 유리, 강감찬, 왕건, 견훤, 신숭겸 등 역사적 인물, 거란과 고려의 관계나, 왕건과 견훤의 관계 등 역사적 정황을 전달하는 것이다. 손진태 역사동화의 인명, 지명, 연대, 인물 관계, 병사의 수 등은 자세하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하다. 아동들은 정확하고 자세한 역사적

28) 기록상에서 손진태와 방정환의 가장 이른 시기 만남은 1922년 8월로 되어있다. 이때 남창은 『개와 고양이와 구슬』 설화를 방정환에게서 채록하였고 이것은 뒤에 『조선민담집』에 수록되었다.

29) 이들의 관계를 육망의 교차로 간주한 논의에 대해서는 정선희(2017), 앞의 논문, 299~306쪽 참고.

30) 박지영, 『방정환의 ‘천사동심주의’의 본질—잡지 『어린이』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1, 2005, 151~153쪽.

31) 당시 어린이의 내적 표상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대로’, ‘거짓없이’, ‘꾸밈없이’ 등의 계열체를 통해 전통적 사유와 연결되는 동시에, ‘천사’, ‘천국’, ‘신성’ 등의 어휘를 통해 서구적 이미지와도 관계를 맺고 있다. (조은숙(2005), 앞의 논문, 67쪽.)

정보를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역사적 인물의 생애에 대해 알게 된다. 주몽은 어떤 과정을 거쳐 건국을 했고, 유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태자가 되었는지, 강감찬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커서는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고려를 쳐들어 왔던 “키타이” 장수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등등 (아동들이 애정을 갖거나 미워했던) 인물의 귀결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이다.³²⁾

5. 인지적 텍스트로서 역사동화

손진태가 참고한 원천 자료 중에는 『삼국사기』와 같은 사료가 포함된다. 정사로 생각되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놓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료를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을 판단하게 될 때, 사료는 사실의 범위를 확인해주는 엄정한 기준이 된다. 역사학도로서 손진태는 어떤 선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손진태의 역사동화에는 사서와 다른 고유명사, 연도, 병사 숫자, 전쟁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 사료와 다르지 않게 역사를 서술하면서도 독자들이 이야기를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작이 필요하다. 새로 개조된 부분은 주로 역사적 사실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손진태는 개인적 상황을 중심으로, 주체들의 심리와 개성을 추가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손진태의 역사동화가 아동들에게 지적 가치를 전달하는 데 할애되기는 하지만, 이 동화들은 특성적 가치를 전달하기도 한다. 지적 가치는 주로 전해진 역사와 이야기 즉 미토스를 전달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며, 특성적 가치는 저자가 가진 고유한 상상력의 산물이다. 개인의 상상의 산물로 특성적 가치가 첨부될 때 미토스는 변화하는 것일

32) 웨인 부스 저, 최상규 역, 『소설의 수사학』, 새문사, 1985.

까, 변화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일까?

역사동화에서 창출된 개인의 구상화는 다시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영향을 미친다. 남창이 선택한 원천 텍스트는 그 장르가 신화와 역사에, 그리고 드물게는 민담에 속한다. 그가 만들어낸 재조정의 결과 주몽신화는 신성성이 아니라 개인의 남성적 능력과 힘에 의존한다. 강감찬은 개성적 외모와 성격을 가진 이로 표현된다. 유리는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가진 소년이 된다. 공적 영역에서 거론되던 인물들에 사적인 뉘앙스가 덧입혀진다.³³⁾ 개인성을 가진 공적 주체가 구성되기에 작가는 결국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사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재현할 수는 없게 된다. 손진태는 역사와 동화를 결합시키면서 역사에 변형을 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의 역사동화는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 인지된 것과 상상한 것, 사실적인 것과 특성적인 것, 기존의 것과 현재의 것이 뒤섞이면서 사서에 없던 것을 만들었다.

이러한 혼합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 이 역사동화에서 가장 의도적인 것은 역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즉 지시적 기능에 맞추어져 있다. 친교적 기능이 주요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지시적 기능과 친교적 기능이 대등한 것은 아니다. 동화에 기입된 구술적인 의사소통에서 잘 나타나는 친교적 기능은, 작가가 동화의 인지적 가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적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 역사적 이야기가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고구할 때, 이야기하는 대상인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33) 예외로 <신승겸 장군>에서는 사적인 영역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역사동화는 매우 짧으며, 구조적으로도 완결되어 있지 않다. <명장 강감찬>은 6쪽, <고구몽 이야기>는 후반부만 5쪽(아마 전반부가 따로 있었을 것이다)인데 비해 <신승겸 장군>은 총 3쪽이다. <신승겸 장군> 마지막 문장은 “신장군은황해도해주사람이였습니다.”인데, 일반적으로 서사를 끝맺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시작하는 데 사용되는 언술이다.

알릴 뿐 아니라, 이야기 자체의 수용과 전달을 알리고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친교적 기능은 독자와 거리감을 좁히고 친밀감을 드러낸다. 손진태 역사동화에 친교적 기능이 작동하는 것은 메시지 자체를 잘 전달하기 위함이고, 메시지의 중요성이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렇게 손진태 역사동화에서 친교적 기능은 중요한 기능이지만 지시적, 인지적 기능에 종속된다. 역사를 객관적으로 잘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제 되고, 이를 기반으로 아동 독자에게 구체적인 역사 전달의 방식을 고민하면서 호기심과 가족을 가진 아동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역사를 전하는 것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지시적 기능에만 국한된 행위는 아니다. 그것을 통해 사역적 기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독자에게 어떤 적극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랄 수 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앎이 미래의 세대에게 본보기, 가치, 명분, 이상을 제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가령 1900년대의 역사·전기소설은 당대의 시대적 조건 속에서 민족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영웅적 인간상의 서사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역사가 국권 회복을 위한 애국심이나 애국주의를 배양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과 부문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독자가 역사적 메시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바뀌기를, 독자에게 역사적 사실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서 영향을 미치기를 바랄 때 사역적 기능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렇다면 손진태의 역사동화에 이러한 사역적 기능이 작동하고 있을까? 지적 독자는 과거의 역사적 정보를 얻는 데 목적이 있어 보이고(이 경우 지시적 기능이 부각된다), 가족으로서의 독자는 인물의 개인적 특성이나 개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이 경우 친교적 기능이 부각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손진태의 역사동화에 사역적 기능이 없지는 않다. 이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암시되어 있다. 이 역사동화의 독자는 고

구려,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로 이어져 온 연속적 흐름으로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 나아가 그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나라를 건국한 이들 뿐 아니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장군, 위기에 처한 장군을 구한 또 다른 장군의 공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독자들은 위기 극복을 통해 만들어진 시간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현재에도 중요한 과제임을 느낄 수 있다. 독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가 아니라 생각하거나 느껴야 하는 역사인식과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현재의 과제에 대해 저자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작가가 선택한 역사적 인물의 업적과 그 결과를 통해 암시될 뿐이다.

남창의 역사동화를 읽는 실제 아동 독자들이 과거 사실에 대한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아마도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아동 독자들이 다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위해 남창은 특성적 약호들을 동원하여 독자들이 역사적 세계에 친밀성을 가지게 하였다. 그의 아동 독자들이 과거의 인식을 토대로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인식을 가지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역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주의 깊은 소수 아동 독자들에게 해당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남창의 역사동화는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정보 전달의 측면과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역사의식 전달의 측면을 가진다. ‘아동’으로서의 독자 기능은 후자보다는 전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건데, 앞서 언급한 『조선민담집』의 역사적 인물에 관한 이야기들은 역사동화로 보기 힘들다. 여기에는 아동 독자를 상정하면서 취하는 친교적 제스처가 없다.

곰보장군 강감찬이라면 우리 조선 사람으로서는 누구든지 다 아는 이올시다. 곰보장군은 지금부터 九百여년전에 경기도시흥군에서났습니다. 장군

의 먼-한아버지는 본시경사도사람이였습니다다마는 그의고조할아버지때에 시흥으로이사를 하였습니다. <명장 강감찬>

강감찬의 아버지가 산길을 걷고 있을 때 돌연 폭풍우가 일더니 인가도 없는 곳에서 헤매고 있는데 개울 저쪽에서 한 집이 보였고 등불이 비쳤다. 그는 그 집으로 뛰어갔다. 집안에서는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 맞이해 주었다. 그는 사흘 동안 그 집 여자의 신세를 졌다. 물론 합방도 했다. <강감찬 설화(1)>

『조선민담집』의 <강감찬 설화>에서는 강감찬이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산골에서 만난 여성과 ‘합방’을 한다는 내용 역시 아이들의 관심사나 시각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또한 <명장 강감찬>에서와 달리 여기에서는 그의 조상에 대해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다. <강감찬 설화>에는 핵심적인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귀주대첩이 빠져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의 누락은 <김수로왕의 뿌리>, <김덕령 전설>, <박문수 일화>, <이순신 일화>를 다룰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이야기는 해당 인물에게 일어난 일상적 혹은 환상적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 <이순신 일화>에서는 이순신이 지휘한 전투가 아니라, 어린 이순신이 기지를 발휘해 아버지를 속인 이야기가 나온다. <김덕령 전설> 역시 임진왜란에서 그가 세운 업적에 대해서는 거의 기술하지 않으며 그가 둔갑술을 할 줄 알고 신검의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전한다. 이렇게 『조선민담집』의 이야기는 아동들을 고려하면서 역사적 정보를 전달하는 인지적 텍스트와는 거리가 있다. 이 이야기들은 개인의 산물인 ‘역사동화’가 아니라 집단의 산물인 ‘인물전설’로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손진태의 역사동화가 이룩한 당대적 성취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기로 하자. 그가 『어린이』에 일련의 역사동화를 투고하던 1920년

대 당시, 설화와 동화의 만남은 여러 가지 표제어와 수식어를 동반하였다. ‘역사동화’를 비롯하여 ‘전설동화’, ‘넋어룬이야기’, ‘전설’, ‘사담’, ‘우스운이야기’, ‘조선동화’, ‘조선위인’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과거를 환기하면서 동시에 고유한 문화의 전신 내지 원형의 성격을 함축하였다.³⁴⁾ 하지만 1920년대에 설화와 동화의 만남은 정확하게 통용되는 하위갈래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1930년대 들어서 일련의 전통 담론의 활성화와 함께 전통 서사 장르가 재발견 되었다. 이때에야 허구성과 사실성을 아우르는 전통문학이 ‘역사동화’, ‘역사장편동화’로 수렴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³⁵⁾, 1920년대 역사동화 장르에 전통적 미토스를 결합한 손진태의 업적은 선구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창작한 역사동화가 몇 편 되지 않기는 하지만, 역사적 영향력이 반드시 다작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 역사동화라는 장르의 정착과 발전은 손진태가 후대 작가들에게 끼친, 의도하지 않았으나 심오한 영향이었다. 손진태 방식의 역사동화, 즉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지시를 위해 친교적 기능을 활용하는 지적인 역사동화가 이후 역사동화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승되거나 변모되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34) 오현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 장르 분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45쪽.

35) 오현숙(2016), 위의 논문, 146쪽.

참고문헌

- <고주몽 이약이>, 『어린이』 1권 9호, 1923, 09.
<류리 이약이>, 『어린이』 1권 10호, 1923, 10.
<장사의 이약이 『곰생이』>, 『어린이』 2권 8호, 1924, 08.
<명장 강감찬>, 『어린이』 3권 5호, 1925, 05.
<신승겸 장군>, 『어린이』 4권 10호, 1926, 10.
<명장 강감찬>, 『어린이』 10권 10호, 1923, 10.
<강감찬>, 『고려사 열전』, DB.
강준식 편저, 『우리민족의 걸어온 길』, 범우, 2008, 1~336쪽.
김부식, 『삼국사기』 13권(이강래 역, 『삼국사기』 1, 한길사, 1~308쪽).
손진태, 『조선민담집』, 향토연구사, 1930(최인학 편역,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1~325쪽).
『한국민족문화대백과』, DB.
- 곽정식, 「강감찬일생의 문학적 연변 양상과 그 의미」, 『어문학』 113, 한국어문화회, 2011, 101~135쪽.
권혁래, 「손진태 『조선민담집』 연구: 설화의 성격과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총론』 53, 2013, 27~57쪽.
김기형, 「손진태 설화 연구의 특징과 의의」, 『민족문화연구』 5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649~676쪽.
김소희, 「『손진태 유고집』 수록 설화의 특징과 의의」,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76쪽.
류기선, 「1930년대 민속학 연구의 한 단면-손진태의 ‘민속학’ 연구의 성격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2, 1995, 57~80쪽.
박성규, 「손진태의 종교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5, 1~58쪽.
염희경, 「소파 방정환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266쪽.
이수자, 「구비문학 연구의 성격과 의의」, 『역사민속학』 1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107~125쪽.
이원수, 『아동문학입문』, 한길사, 2001, 1~356쪽.
정선희, 「손진태의 『어린이』 소개 작품 목록 재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6, 한

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295~332쪽.

조은숙, 『한국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178쪽.

한국역사민속학회 편, 『남창 손진태의 역사 민속학 연구』, 민속원, 2003, 1~352쪽.

황인덕, 『손진태의 구비문학 연구』, 『구비문학연구』 2권, 한국구비문학학회, 1995, 293~321쪽.

피터 브룩스, 『정신분석과 이야기행위』, 문학과지성사, 2017, 1~218쪽.

Roman Jakobson, *Language in Literature*, Havard University, 1987, pp.66~71.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y Fairy Tales of Son Jin-tae

Ryu, Jeong-wol

This paper examines the combination of 'history' and 'fairy tale' in Historical fairy tales written by Son Jin-tae'. I want to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historical fairy tales focusing on the strategies and effects that Son Jin-tae has taken to communicate historical information to children. To do this, I first selected the texts, which are historical fairy tales, among the stories written by Son Jin-tae and examined how they relate to the original texts.

Nam-chang created historical fairy tales by borrowing realistic folk tales, fantastic folk tales and myths. As a result, not only are they realistic or real stories, but also fictional or fantastical stories. Nonetheless, his historical fairy tales do not include proper nouns, years, and war situations which do not match the original text. The new discourses in his history fairy tales are the personality of characters. The characters are portrayed as persons with individual qualities such as masculine/feminine gender and strength/weakness. Nam-chang uses a supplementary means to convey history in an objective way. And he assumes the children as readers who are members of a family and have intellectual curiosity. In this sense, the historical story fairy tales of Son Jin-tae are cognitive ones that utilize communion functions to indicate history exactly.

Key Words Son Jin-tae, historical fairy tales, 『*Childern*』, discourse, children's reader, cognitive function, phatic function

논문투고일 : 2019.01.15

심사완료일 : 2019.02.12

게재확정일 : 2019.02.19